

 보 도 자 료 2013.9.12.(목)	행사문의	송치선 전문연구원(02-3156-7144)
	언론담당	황애리 홍보담당(02-3156-7296)
	보도일자	2013.9.12.(목)
	※ 총 4쪽 (붙임 포함) www.kwdi.re.kr	

여성가족패널로 살펴보는 일과 가족, 그리고 건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3회 여성가족패널 국제학술심포지움 개최
 한국, 호주, 싱가포르, 미국, 대만 전문가 참여하여 연구결과 및 패널 교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9월 13일(금) 오전 9시 30분에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제3회 여성가족패널 국제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한다.

※ 여성가족패널조사 : 대한민국 성인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가족 관계 및 구조, 일·가정양립, 여성건강 등 삶의 전반을 담아내는 방대한 종단면 자료로, 여성의 사회적 행동과 생애 변화에 대한 학술적 연구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여성·가족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가능하다.

- 이번 행사는 한국, 호주, 싱가포르, 미국, 대만의 전문가들이 모여 여성의 건강과 가족, 일자리 등 다양한 영역의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학술적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 최금숙 원장은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움이 여성가족패널 자료의 국내외적 활용도 및 학술적 정책적 기여도를 높이고, 국내외 패널 연구자들의 연구교류 및 네트워크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행사 개최의 의의를 밝혔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최근 여성가족패널 자료에 대한 해외 연구자들의 관심과 활용수요 증가, 그리고 여성건강 관련 패널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 등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그 첫 번째 결실을 공개하고자 한다.
- 여성가족패널 4차 조사(2012년 조사 수행)에서는 여성 건강 설문 문항을 추가하였으며 특히, 국제비교 연구가 가능하도록 항목을 개발하였다.
- 설문지 등 제반자료의 영문화 작업을 완료한 1~3차 여성가족패널 자료들은 여성가족패널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4차 국문 및 영문자료는 내년에 공개 예정이다.
- 한편,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호주 뉴캐슬 대학교 산하 젠더, 건강과 고령화센터(Research Centre for Gender, Health and Aging; RCGHA)는 MOU를 체결하고, 이날 행사에 앞서 체결식을 개최한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여성들의 삶에 대한 종단면 자료를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2006년부터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를 준비하고, 2007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현재 4차 조사를 완료한 상태이다.

붙임 1 행사 개요

- 행사명 : 제3회 여성가족패널 국제학술심포지움
- 일시·장소 : 2013년 9월 13일(금) 09:30~17:00,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후원 : 한국가족법학회, 한국보건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 프로그램

9:30-10:00	등 록	
10:00-10:40	1. MOU 체결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호주뉴캐슬대학교 젠더와 건강, 고령화 센터(POGHA) 2. 개회식 개회사 : 최금숙 원장(한국여성정책연구원)	
Session 1		
사 회 : 김미곤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40-12:00	1	한국 여성가족패널 소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 정부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원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